



진리
평화
창조

외대학보

발행인	김영수
편집인	김영수
주필	김영수
발행처	서울시 용인구 용인로 270-1
전화	031-449-7911
팩스	031-449-7912
이메일	hagbo@hagbo.com
홈페이지	www.hagbo.com

창간 1955년 4월 11일
등록번호 제253호

[주간]

THE OE DAE HAGBO

제597호 1993년 3월 2일 (화)

1958년 3월 27일 제3종 우편물 (가) 급인가

등록금 인상률, 물가인상률의 3배를 넘는다

기나긴 겨울방학을 끝내고 불과 함께 캠퍼스가 활기를 찾고 있다. 그러나 새내기들이 맞이하는 기쁨이 있는 반면 새 학기를 시작하는 학생들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 있다. 바로 등록금 문제이다.

등록금 액수가 처음으로 일곱자리 수를 넘어선 92년, 등록금을 총학생회로 납부하며 파나한 인상에 반대한 작년의 금액보다 올해는 약 15%가 더 인상된 1백16만 4천원(인문계열)으로 고지되었다.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신입생의 경우는 입학금을 포함하여 1백58만1천원으로 고지되었다.

등록금을 마친 학생도 있었지만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공통의 문제점은 등록금이 너무 비싸다는 것이다. 특히 집안 형편이 어렵거나 자신의 직접 등록금을 마련하는 학생들에게는 더욱 큰 문제로 다가갈 것이다.

서울캠퍼스 총학생회가 방학중 도서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71%가 넘는 학생들이 사용에도 관계없이 등록금이 너무 비싸다고 답했다. 또한 이 설문조사에서 24%만이 학과별전을 위해 예산만 쓰여진다면 수용할 수 있다고 답했으며 또 타 대학과 비교할 때 적정수준이라고 답한 학생은 5%에 불과했다. 등록금에 대한 불만은 분명히 나타났다.

그럼 이러한 등록금은 누가 어떻게 결정하고 있으며 문제는 과연 무엇일까?

현재 사립학교의 등록금 책정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진다. 학과별 등록금 책정은 학과별 예산에 따라 다르다. 학과별 예산은 학과장에게 주어진다. 학과마다 재정 상황이 다르므로 등록금 액수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이러한 형식을 취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학교간 등록금 액수의 차이를 없애 학생들의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본교 예산과 운영과 과장은 이야기 한다.

올해의 등록금이 이미 지난해 11월에 열린 이 회의의 회의에서 논의된 것 처럼 지난해 12월 전기대 임시대 수렴결과에 일방적으로 인상, 고지되었다.

이러한 모습은 지난 '91년 12월, 대학법정이 학생들과 협의한



지난해 서울캠퍼스에서는 20명이 넘는 수임가부를 통해 7월의 합의사항을 도출했다. 그중에서 가장 핵심사항은 예산결산 공개로 현재 학내에서 중요 쟁점화되고 있다.

서울, 정직한 예산결산 공개가 외대발전의 첫걸음

용인, 일곱차례 회의에도 등조위 구성 조차 못해

'예산결산 위원회와 학생회의 예산결산 성 소외'는 등록금에 대한 협의의 한 가지 결과로 총학생회에 결의한다'는 조항을 무시한 절차로 볼 수 있다. 등록금결정위원회(이하 등조위)를 통한 등록금 협상을 제외한 용인캠퍼스 총학생회의 경우 7차례가 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등조위 구성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에는 지난해 12월 열린 전국대학 학생자립단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인 '대학의 등록금은 학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등록금 책정, 예산결산 참여, 총학생회 관련 등은 학생자치활동의 범위와 한계가 있으므로 협의한다'는 내용이 기인한다.

한양대의 경우 법인 이사장 겸 총재의 아들 김경환 교수(교육공학)는 직접총장추보공약으로 '재단 전입금'이 학생과 대학관계가 협의, 운영을 하면서도 적자를 보지않는 건전한 운영을 하고 있다. 이 문제로 조선대는 다른 대학들로부터

'협조해달라'는 간접적 불만을 듣고 있다고 이 대학 정병우 총장은 밝혔다. 재단 없이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조선대 외에 성균관대와 홍익대 등이 있으며 이 학교들 모두 건설한 학교 운영으로 '사립대학 재단'이 과연 교육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라는 의문까지 가지게 한다. 학생들과의 등록금 협의의 중요성과 함께 전제조건으로 제기되는 것이 '정직하고 명확한 예산결산 공개'이다.

학생들은 불가인상 때문에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 필요한 금액을 학생들이 부담해야한다는 논리는 명백히 반대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등록금 중에는 교육환경 개선 등에 쓰이지 못했다는 것이 더욱 반대하고 있다.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 이철준(사양·영아)군은 "해마다 특강을 이유로 들어 등록금 인상을 해 왔지만 교육환경이 나아진 것은 하나도 없으며 학부 기금과 마찬가지로 전입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서 일방적인 등록금 인상은 인정할 수 없다"

고 이야기한다. 실제로 본교생들이 다른 대학 학생들과 같은 등록금을 내면서도 시설, 도서, 교수 등 교육환경이 뒤처지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본교 교육환경의 열악상은 이의 개선에 등록금 인상을 단골로 동원해 지급되지 않는다는 문제를 찾을 수 있다. 실제 등록금이 18.18% 이상인 지난해의 경우 등록금인상을

해 반드시 학생들의 학사행정 참여를 구현하겠다"고 이후 방향을 밝혔다. 93학년도 예산결산 기한(2월8일)을 20일이 넘기고도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2차 등록금 마당 시한인 2월20일(토), 92학년도 결산보고 기간인 4월10일까지 이 문제가 학내에서 주요 문제로 쟁점화 된 것으로 보인다. [임성민 기자]



'문민'이라는 포장지

▲옛말에 '소문난 장차에 먹을 것 없다'라는 말이 있다. 그것은 아마 형식적으로 아무리 화려하더라도 그것에 실감나는 중요성과 유익한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반대에 가며 불타올라 버릴 것이다.

▲올라온 TV를 보고 있자니 우리의 마음과 함께 문득 외국의 속담이 떠올랐다. 지난 25(목) 일 각종 방송매체에서 하루종일 방영된 14대 대통령 취임식과 축하공연이 바로 그 것이다.

이 화려한 방송들의 축하와 들리들 속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그렇게도 외치는 문민정부는 세 아침을 맞았다.

▲사실 김대통령이 주장하는 문민정부는 대통령이 민간출신이라는 것 이상을 나타내 주지는 않는다. 다시 말하면 이전의 정치권력을 장악한 집단이 군부를 위시한 권위주의적인 권력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민간인이 대통령이 된 것일뿐, 민간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그 정부의 성격과 정권이 이전보다 더욱 진보된, 민주화된 내용을 스스로 담보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이러한 실정적인 개혁을 위해 정말 7공정부가 노력할 때 현재 부정부패를 회정시키고 있는 우리사회의 대학교 비리, 전보의 요란으로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노재홍]

지 면 안 내

- 3면: 총학생회, 재정결의서 내용
- 4면: 세계경제질서개편-블록경제화
- 6면: 전국 제정세 복직 추진위원회 활동
- 7면: 외대인 문화신세대와 만나-영화인 박광수
- 8면: 기여입학제 도입에 대한 신입생의 의식조사
- 9면: 썰수입 반대투쟁
- 10면: 본교 새 입시방안 어떻게 되나?

진리·평화·창조



세계를 호흡하는 外大人

해가 지지 않는 밤의 배움터 - 서양어 계열
전통에서나 교양에서나 손색이 없는
지성인들을 배출해온 전통을 자랑하는 곳.
외대인은 어디에나 있고 바로 거기에
서양어 계열 출신의 인재들이 뛰고 있습니다.

세계사의 새로운 주역들 - 동양어 계열
21세기의 당당한 주역인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의
언어, 문화, 역사, 정치, 경제 그 모든 것이
교육되고 연구되는 곳 세계속에 한국을
심는 전문가가 양성되는 동양어 계열

무한한 가능성의 신 개척지 - 동구어 계열
더 이상 우리에게 낯선 이름이 아닌 동유럽,
그러나 아직까지 미개척적인 땅. 이 새로운
땅을 개척해 갈 젊은 젊은들이 미지에 대한
도전을 준비하는 곳입니다.

과학적, 실전적 학풍 - 법정 계열
출발은 늦었지만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정책학과대학과 정통성과 실천적인 학풍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법과대학.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도망입니다.

진리
평화
창조



韓國外國語大學校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인재들 - 심경계열
연구와 교육, 이론과 실제의 균형있는 전문,
급격하게 변화하는 세계질서에 대응한
국제경제전문가를 양성, 배출해옴.
이 지구촌의 주인으로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소수정예의 2세 교육자 - 시범계열
교육자의 인품과 유망한 '소수의 길'을
따는 곳. 국제화 시대에 필수적인 외국어 교사를
양성하는 사범계열은 전문적 교사로서의
품과 자질이 익어가는 터전입니다.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인간 교육 - 인문계열
인류의 미래에 대한 창조적인 상상력을 가진
이들이 인간다운 삶을 위한 진지한 대화와
각론이 그치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아픔을
함께 하며 우리들의 모습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대화할 수 있는 언어 - 자연계열
어진 미지의 세계인 자연, 자연보다 더 넓고
깊은 대화의 길은 열려가: 자연계열은
인류의 보다 풍요롭고 자유스러운 앞날을 위해
오늘도 연구실의 불빛은 밤도록 꺼지지 않습니다.

3948

